

《목차》

- 01~01 : 음운변동 및 표준발음법
- 02~03 :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 04~09 : 한글맞춤법
- 10~13 : 문장의 짜임 및 문장성분의 호응
- 14~14 : 국어사(중세국어)
- 15~15 :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참고: 정답이 음수인 경우,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 5. 제시된 말의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원론[이 : 원논]
- ② 동원령[동 : 원녕]
- ③ 임진란[임 : 진난]
- ④ 상견례[상 : 견네]

201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3-2-1

4. 표준 발음법에 모두 맞지 않는 것은?

- ① 휘발유[휘발뉴], 서울역[서울녁]
- ② 몰상식[몰쌍식], 갈증[갈쑹]
- ③ 남존여비[남존녀비], 색연필[생년필]
- ④ 옷맵시[온맵씨], 뭉뚱이[몽목씨]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4-4-3-2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가을일[가을릴] | ㉡ 텃마당[툰마당] |
| ㉢ 입학생[이팍쌍] | ㉣ 흙먼지[흥먼지] |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2019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3+2-3

문 1. 표준 발음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난치병[난치뽕]
- ② 면허증[면:허쑹]
- ③ 사기죄[사기죄]
- ④ 유리잔[유리잔]

2013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

문 19.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색연필[생년필] 사러 문방구에 갔다 올게요.
- ② 불벌더위[불벌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 ③ 너도 그렇게 차려입으니 옷맵시[온맵씨]가 난다.
- ④ 서점 가는 길에 식용유[시공뉴]도 좀 사 오너라.

2014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交替),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脫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添加),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縮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교체 - 부엌[부억]
- ② 탈락 - 굳이[구지]
- ③ 첨가 - 솜이불[솜니불]
- ④ 축약 - 법학[버팍]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4-3

문 1.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길을 떠나기 전에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 두자. - [배속]
- ②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 [일따]
- ③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에 ‘ㄷ’을 쓰지 않는다. - [디그슬]
- ④ 우리는 균용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 [균녕]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3-4

문 11. 통사적 합성어인 것은?

- ① 큰집
- ② 땀밥
- ③ 늦더위
- ④ 검붉다

201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3

문 14. 밑줄 친 말 중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요즘 별일 없으시죠?
- ② 그는 귀신이 없다고 믿었다.
- ③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④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201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

문 2.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늘 푸른 소나무는 낙엽수가 아니다.
- ② 할아버지께서 작은형을 부르신다.
- ③ 어린 철수가 혼자 집을 보고 있다.
- ④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5

문 10. 국어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일 때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의 예로 잘못 제시된 것은?

- ① 집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칭찬을 들었다.(조사) /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순 날강도다.(의존명사)
- ② 올해는 꽃이 늦게 핀다.(형용사) /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동사)
- ③ 친구와 같이 영화관에 갔다.(부사) / 아버지는 항상 소같이 일만 하신다.(조사)
- ④ 선생님도 많이 높으셨네요.(형용사) /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는다.(동사)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3-2-1

문 4.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모두 고른 것은?

-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갈등이 다소 해결되었다.
-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라.
-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
- 나를 보기 위해 왔니?

- ① 만남, 한, 뿐
- ② 한, 뿐
- ③ 한, 뿐, 보기
- ④ 만남, 보기

2014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 ② 너를 위해서 맘을 흘렸어.
- ③ 흠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 ④ 단팔죽이라도 가져와야지.

2014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5

문 12.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할 때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모든 권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 ②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 ③ 역려 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했다.
- ④ 많은 사람이 우리 의견에 동조했다.

2014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2

문 11.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그 예가 맞지 않는 것은?

- ①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경우 - 할미꽃
- ② 관형어와 체언이 결합된 경우 - 큰형
- ③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경우 - 빛나다
- ④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된 경우 - 날뛰다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3-2

문 1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 ②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2015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5

문 16.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 쓰러져 가는 집에서 늪은 아버지가 홀로 기다리고 계셨다.
- ① 저 기차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네.
 - ② 박사는 이제 그를 조수로 삼았네.
 - ③ 산나물은 바다의 미역과 다르겠지.
 - ④ 걸모습보다 마음이 정말 예뻐야지.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4

문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열쇠, 새빨강다
- ② 뉘엿, 질푸르다
- ③ 감발, 돌아가다
- ④ 젊은이, 가로막다

2016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타올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2016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5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갈염기
- ② 갈타자
- ③ 갈기침
- ④ 갈행군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3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 들르다)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4

문 16.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ㅁ/-음’은 ‘ㄱ’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 ②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 ③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 ④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애국자다.

2017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

문 7.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실 생각이다.
- ③ 일에 서툼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
-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

2020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5

문 6. 다음 중 잘못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백분률	ㄴ. 떡볶이
ㄷ. 내가 갈께	ㄹ. 요컨대
ㅁ. 좇점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ㄷ, ㅁ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3-2-1

문 7.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박 사장은 자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몰랐다.
- ② 그녀는 조금만 추어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 ③ 나룻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 ④ 우리들은 서슴치 않고 차에 올랐다.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2. 문장 부호를 옳게 사용한 것은?

- ①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②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 ③ 문장 부호 - 마침표 · 쉼표 · 따옴표 · 묶음표 등
- ④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3-3

문 9.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우리V민족의V염원은V통일뿐이다.
- ② 무엇이V틀렸는V지V답을V맞추어보자.
- ③ 우리는V생사V고락을V함께V한V친구이다.
- ④ 이번V시험에서V우리V중V안V되어도V세V명은V합격할V것같다.

201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5

문 10. 밑줄 친 말 중 표준어인 것은?

- ① 온몸에 부시럽이 나다.
- ② 낚낚대며 농지거리들을 주고받다.
- ③ 우리는 펠레야 펠 수 없는 사이야.
- ④ 그런 케케묵은 이야기는 꺼내지 마.

201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1.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건물의 아랫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 ② 일이 하도 많아 밤샘 작업이 예삿일로 되어 버렸다.
- ③ 그는 비싼 자릿세를 꼬박꼬박 거둬들인다.
- ④ 그는 헛바늘이 서고 입맛이 깔깔하였다.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5

문 2.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②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감시원을 부칠 수밖에 없다.
- ③ 그 식당은 몸 부칠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대접한다.
- ④ 불문에 부칠 양이면,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4

문 3.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떨어뜨리다, 으레, 우레
- ② 낮우다, 덩굴, 연달아
- ③ 거시기, 깡충깡충, 귀고리
- ④ 여지껏, 의심쩍다, 잇달아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3

문 6.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철수도 오겠데?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③ 그 친구는 아들만 둘이데.
- ④ 고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데.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5

문 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같이
- ② 못지 않게
- ③ 수십 년 전
- ④ 할 뿐만 아니라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4-8

문 18. 어휘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 ① 웬 차가 이렇게 많아?
- ② 참 오랫동안에 눈이 내린다.
- ③ 택시 값 얼마 주고 내렸어?
- ④ 나는 오늘 30분 일찍 출근했어.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4-6

문 4.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추위를 무릎쓰고 밖에 나가셨다.
- ②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 ③ 그가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 ④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렀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2012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6. 밑줄 친 표현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고향 젓갈로 담가서 그런지, 이번 김치맛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야!
- ② 한참 동안 감기를 앓았다더니, 네 눈이 정말 상큼해졌구나.
- ③ 이사를 하게 되자, 매일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기던 우리 사이가 조금씩 상기게 되었다.
- ④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잡귀 두었다.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2

문 9.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체로 술을 받친다.
- ② 요즘 영수는 수영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 ③ 이것으로 추사를 갈음합니다.
- ④ 고무줄을 더 늘이면 끊어질 것이다.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5

문 1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 살립니다.
- ② 우리 부부는 둘 다 돈을 벌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 벌므로
- ③ 그는 땀에 젖 작업복을 갈아 입었다. → 젖은
- ④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밀읍시다. → 밀시다.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7

문 4. 밑줄 친 명사형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추운 날씨로 계곡에 얼음이 없.
- ② 불우 이웃에게 온정을 베품.
- ③ 빠른 걸음으로 걸음.
- ④ 고기를 맛있게 구웁.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

문 7.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그가 고향을 떠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 ② 이 건물을 짓는 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 ③ 옆집에서 잔치를 하는 지 아주 시끄럽네요.
- ④ 빠른 시일내에 원상태로 복구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8

문 13. 밑줄 친 부분이 2011년 8월 새로 추가된 표준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사랑이 뭉기에/뭉길래 그렇게 힘들어하나?
- ② 그 사람은 좋아하려면/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
- ③ 우리 형제들은 오손도순/오손도손 잘 지냅니다.
- ④ 저 친구는 만날/맨날 지각이야.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

문 3.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큰일을 치루었더니 몸살이 났다.
- ② 라면이 불으면 맛이 없다.
- ③ 술에 쌀을 안치리 부엌으로 갔다.
- ④ 네가 여기에는 웬일이니?

2013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2

문 1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어제 선생님을 봣습니다.
- ②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 ③ 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네요.
- ④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2014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1

문 3.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무엇을V해야V할V지V모르겠다.
- ② 내가V너라도V그렇게V할V수밖에V없었을V거야.
- ③ 차V한V대가V쏟살같이V지나가는V것을V봤습니다.
- ④ 교실V안에는V가방,V체육복,V신발V들이V어지럽게V널려V있었다.

2014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3-2

문 4.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고무줄을 늘렸다.
- ②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 ③ 나는 집에 갈께.
- ④ 학교에서 백요.

2014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2

문 5. 어법상 바른 문장은?

- ① 연필 잡은 손가락에 군살이 박혔다.
- ② 이농 현상에 따라 도시 인구가 높아졌다.
- ③ 바로 그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④ 마음을 풀이며 대문 앞으로 갔다.

2014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1-1

문 3.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는 밥을 안치기 시작하셨다.
- ② 이 원고를 인쇄에 부치기로 하였다.
- ③ 가게 주인이 상품을 벌여 놓기 시작했다.
- ④ 바람에 문이 절로 닫치며 큰 소리가 났다.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3-2

문 7. 사이시옷의 표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① ‘모깃불’의 사이시옷은 ㉢에 의한 것이다.
- ② ‘뒷머리’의 사이시옷은 ㉡에 의한 것이다.
- ③ ‘선짓국’의 사이시옷은 ㉣에 의한 것이다.
- ④ ‘예삿일’의 사이시옷은 ㉣에 의한 것이다.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3-3

문 13.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꼬마들에게는 주사를 맞추기가 힘들다.
 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ㄷ.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소박을 맞히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ㄹ. 여자 친구와 다음 주 일정을 맞춰 보았더니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3-2

문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2015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3+5-8

문 2.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우표 수집에 있어서는 마니아 수준이다.
- ② 어머니께서 마늘쫘로 담그신 장아찌를 먹고 싶다.
- ③ 그녀는 새침데기처럼 나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 ④ 그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한 일은 우리에게겐 행운이었다.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4-3

문 5.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제목 : 통일 교육 자료집 배부 알림

호국안보의 달을 맞이하여 각 학교의 통일 교육의 수월성에 기여하고자, 통일 교육 관련 자료집을 학교 당 1권 씩 배부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교육 지침 청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 학교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여하고자 → 기여하고자
- ② 학교 당 → 학교당
- ③ 1권 씩 → 1권씩
- ④ 말씀드린바 → 말씀드린 바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4-4

문 6.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 ② 그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 ③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왔다.
- ④ 건물이 부쉬진 지 오래되었다.

2015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3+5-5

문 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이미 설명한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③ 은연 중에 자신의 속 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 ④ 그 빨간 캡슐이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입니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6

문 12. 다음 중 표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영화는 공부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세웠다, 새웠다).
ㄴ. 네 동생은 우리가 (닥달해, 닥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ㄱ ㄴ
- ① 세웠다 닥달해
 - ② 새웠다 닥달해
 - ③ 세웠다 닥달해
 - ④ 새웠다 닥달해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5

문 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어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2016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3+5-6

문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마저 없는 사람이다.

2016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5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날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여서 맞출처럼 만들었다.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6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5

문 1.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괴념치 않는 것이 좋다.
- ② 필요한 부분만 책에서 발체해서 발표할 수 있다.
- ③ 고집대로만 했다간 문화제 계획마저도 와훤될 판이다.
- ④ 나는 설명서에서 그 기계의 제원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2017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

문 5.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일이 얽히고 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 ② 나를 알아 주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
- ③ 그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 ④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 없는 짓이었다.

2017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

문 1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가): 미달이, 줄음, 익히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 ③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④ (라): 꼬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2018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학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이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2019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남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2019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재된다.
- ③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릅니다.

2020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5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데나 쓴다.
-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2020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

문 1.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 ② 결혼식이 몇 월 몇 일이야?
- ③ 굳은살이 박인 오빠 손을 보니 안쓰럽다.
- ④ 그는 주말이면 으레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202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2.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써 부족함이 없다.
- ②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③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 ④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서 세 번째가 됩니다.

202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

문 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 ③ 오뎅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 ④ 차간(車間), 화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2021년 제1회 국가직 9급 나 정답 = 1+2+3-4

문 2.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지금쯤 콜아떨어졌겠지?
- ② 그 친구, 생각이 깊던데 책깨나 읽었겠어.
- ③ 갓은 곤욕과 모멸과 박대는 각오한 바이다.
- ④ 김 과장은 그리고 나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했다.

2020년 제1회 국가직 9급 가 정답 = 1+2+3-5

문 13.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싸매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①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②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지 여부이다.
- ③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이다.
- ④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2

문 12. 겹문장인 것은?

- ① 없어.
- ②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 ③ 그런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해?
- ④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1

문 11. 밑줄 친 문장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을 지어 왔다. 그래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육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된 것이다. (중략)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 그러나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보면, ㉡힌두교도들 역시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을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이슬람, 유대교도들 또한 서유럽의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거부감이 느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2012년 제1회 지방직 9급 A(편집자 변형) 정답 = 1+2+3-3-1

문 2.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은?

- ① 아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 ② 엄마는 아침에 굴과 토마토 두 개를 주었다.
- ③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 ④ 그이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거 같다.

2013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1

문 17.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영업에 한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 ④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2012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3

문 17. ㉠~㉣을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과 함께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해 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고3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쫓겨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꼭 찾아뵙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 ① ㉠ :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으로 바꾸어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춘다.
- ② ㉡: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으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다.
- ③ ㉢ :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한다.
- ④ ㉣ :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해요체 ‘조심하세요’를 사용한다.

문 13. 가장 우리말다운 표현은?

- ① 그 사람은 선각자에 다름 아니다.
- ②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 ③ 나에게 있어 낙선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입니다.
- ④ 우리 서로 입장을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4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2

2014년 제1회 지방직 9급 A (편집자 변형) 정답 = 1+2+3-2

문 16.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간접 높임이란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으시다.’처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간접 높임을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언어 생활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 ① 과장님, 여쭙어볼 게 있어요.
- ② 나도 그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
- ③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지금 교무실로 오시래.
- ④ 손님,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014년 제2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2

문 15. ㉠ ~ ㉣의 밑줄 친 부분이 높이고 있는 인물은?

㉠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신다.
 ㉡ 형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다.
 ㉢ 할머니, 아버지가 고모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 | | | |
|--------|-----|-----|
| ㉠ | ㉡ | ㉢ |
| ① 아버지 | 선생님 | 할머니 |
| ② 아버지 | 형님 | 아버지 |
| ③ 할아버지 | 형님 | 아버지 |
| ④ 할아버지 | 선생님 | 할머니 |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2-3

문 14.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 ② 사랑하는 조국의 딸들이여!
- ③ 그는 자기가 맡은 과제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
- ④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2

문 13.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2015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

문 5.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기를 바랄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③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 ④ (같은 반 친구에게) 영화표가 두 장 생겼어. 오늘 나와 같이 보러 가자.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4-3

문 3.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그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김 교수에게 피아노를 사사했다.
- ② 주민들은 정부 당국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 ③ 인간은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④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에 같음합니다.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4+6-10

문 16. 다음 <공고문>의 ㉠~㉣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고문>

이곳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이곳을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법에 ㉢절촉되오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5년 00월 00일 주인 백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 ② ㉡: 문장 성분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해 ‘이곳을’을 ‘이곳에’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 ③ ㉢: 맥락상 적절하지 못한 단어이므로 ‘지촉’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 ④ ㉣: 어법에 맞게 ‘삼가해 주시기’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4-4

문 14.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① 사업자는 → 사업자의
- ② 에너지를 → 에너지의
- ③ 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 ④ 발전과 → 발전보다

2015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15.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 ① (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③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 ④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2015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2

문 5.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② 고객님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 ③ 어른들이 문자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④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5

문 14.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 ① 정수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 ② 미희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다.
- ④ 모든 소년들은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6

문 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 ② ㉡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③ ㉢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4

문 12.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황사는 탄산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봄철의 산성비를 중화시켜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또 황사는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 ㉡그리고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라 되어 버렸다. 이처럼 황사가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덕분이다. 현대의 황사는 각종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독성 황사이다. 황사에 포함된 독성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며 기형아 출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황사를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정도도 훨씬 심해지고 있어 문제이다.

- ① ㉠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 ③ ㉢은 어휘가 잘못 사용된 것이므로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④ ㉣은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황사가'로 고친다.

2017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

문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 ②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켰다.

2018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

문 1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② ○○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2018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2

문 11.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꼽고’로 수정한다.
-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 ④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2020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5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는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2019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5

문 17. (가)~(라)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나)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라)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 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 ① (가):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다’로 고쳐 쓴다.
- ② (나): ‘지양’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으로 고쳐 쓴다.
- ③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 ④ (라): ‘납부’는 맥락상 금융 기관이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이는다는 ‘수납’으로 고쳐 쓴다.

202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

문 15.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모음 ‘개, 꺨, 꺮, 꺰’ 등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릿값(음가)이 바뀌었다.
- ② 15세기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가’와 ‘이’가 있었지만, 점차 ‘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 ③ ‘어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나이가 적다’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현명하지 못하다’로 바뀌었다.
- ④ 15세기 국어는 방점으로 소리의 장단을 표시하였으나, 그 장단은 점차 소리의 높낮이로 바뀌었다.

2011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2

문 19. 훈민정음 중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로만 묶인 것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ㄹ, ㅅ, ㅎ
- ③ ㄱ, ㄴ, ㅁ, ㅅ, ㅇ
- ④ ㄱ, ㄹ, ㅅ, ㅇ, ㅋ

2011년 제1회 지방직 사회복지 9급 A 정답 = 1+2+3-3

문 19.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象舌附上齶之形’에 해당하는 자모는?

- ① ㄱ
- ② ㄴ
- ③ ㅅ
- ④ ㅇ

2013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1

문 12.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훈민정음 각 글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象形)의 원리이다. 초성은 발음 기관을, 중성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본떠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글자를 만든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정확하게 글자의 모양으로 구현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은 현대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변별적 자질, 즉 음성적 특성을 형상화했다. 소리의 위치나 특성이 비슷한 글자들은 모양도 유사하다. 더불어 음소 문자를 음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체계는 가독성에 있어 어느 문자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음소가 말소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을 훈민정음은 글자의 제작과 운용에서 모두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① 한글의 ‘ㅂ:ㅃ:ㅍ, ㄷ:ㅌ:ㅍ, ㄱ:ㅋ:ㆁ’은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말소리의 유사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 ② 영어 단어 ‘mouse’가 몇 개의 음절인지 글자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마우스’라는 단어에서는 세 개의 음절임이 바로 드러난다.
- ③ 영어에서는 ‘street’처럼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 낼 수 있지만, 한글에서는 ‘젊고, 값도’에서 보듯이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 낼 수 없다.
- ④ 로마자의 ‘m, n, s, k’ 등은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없지만, 한글의 ‘ㅁ, ㄴ, ㅅ, ㄱ’은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4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3+5-3-3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ㅇ
- ② ㅏ
- ③ ㅑ
- ④ ㅓ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2

문 1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ㅋ	ㅣ ㅡ	ㅏ ㅑ
ㄷ ㅌ	ㄴ ㄹ	ㅓ ㅕ
ㅁ ㅂ	ㅅ ㅆ	ㅗ ㅛ
ㅈ ㅊ	ㅇ ㅎ	ㅜ ㅠ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ㅅ’은 ‘ㅈ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② ‘ㅁㅂ’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 ③ ‘ㄷㅌ’과 ‘ㄴ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이 중에서 ‘ㅎ’은 ‘ㄱ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2018년 제1회 지방직 9급 B 정답 = 1+2+3-4

문 2. 다음 <안내문>에서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시는 광복 65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기간 : 2010. 8. 9 ~ 2010. 8. 15
2. 행사 내용
 - 가. 아시아 문화 경제 심포지움
 - 나. 시민 문화 센터 개관 기념 '해방 전후 사진전'
 - 다. 뮤지컬 '안중근, 하얼빈에서 올린 축포' 상연
 - 라. 미니 플래카드에 통일 메시지 적어 달기

○○시 시장 ○○○

- ① 심포지움 ② 센터 ③ 하얼빈 ④ 플래카드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2

문 8.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 ① Jeju(제주), Busan(부산), Daegu(대구)
- ② Daejeon(대전), Gimpo(김포), Yeouido(여의도)
- ③ haedoji(해돋이), joko(종고), allyak(알약)
- ④ Nakddonggang(낙동강), Geumgang(금강), Yeongsangang(영산강)

2010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

문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 ① 목호 Muko
- ② 극락전 Geuknakjeon
- ③ 경포대 Gyeongphodae
- ④ 평창 Pyeongchang

2012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4-6

문 3. 외래어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이팅
- ② 슈퍼마켓
- ③ 꼬냐
- ④ 램플릿

2012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

문 5.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 ① coffee shop - 커피숍, barbecue - 바베큐, diskette - 디스켓
- ② jacket - 재킷, service - 서비스, battery - 밧테리
- ③ symbol - 심벌, sonata - 소나타, target - 타깃
- ④ flute - 플루트, message - 메세지, chocolate - 초콜릿

2013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2-1

문 2.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 ① 리포트, 서비스, 워크숍, 콤플렉스
- ② 색소폰, 쥬스, 텔레비전, 판타지
- ③ 심포지엄, 로케트, 앙케트, 타월
- ④ 난센스, 리더십, 싸인, 파일

2014년 제1회 지방직 9급 A 정답 = 1+2+3-3-2

문 1. 로마자 표기법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월곶 - Weolgot
- ② 벚꽃 - beotkkot
- ③ 별내 - Byeollae
- ④ 신창읍 - Sinchang-eup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5

문 3.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춘천 - Chuncheon
- ② 밀양 - Millyang
- ③ 청량리 - Cheongnyangni
- ④ 예산 - Yesan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A 정답 = 1+2+3-4